

연시도 소개

조선에서 임금이 내려주는 시호를 받는 것은 무척이나 큰 가문의 영광이었다. 1767년(영조43) 문경공 박충원(호 낙촌)과 문장공 박계현(호 관원) 두 분이 시호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두응촌 2묘역의 낙촌 묘소와 바로 아래 관원 묘소에서 같은 날 연시례를 행하였다. 그 행사 모습을 검재 정선의 손자인 정황이 따로 따로 그려놓은 연시도이다.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. 이 연시연에는 차형도, 이형원 등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모두 참석하였고, 행사의 주관은 후손 박천환이 맡았으며, 두 분의 시호를 받는 과정에는 화록공의 6세손으로 정조임금의 스승이었던 박성원(문헌공)이 있었다. (편집 문화이사)



문경공(박충원) 연시도



문장공(박계현) 연시도